

일본의 1968년 학생운동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평가

정아영*

1968년, 프랑스, 독일, 미국과 함께 일본에서도 대규모 학생운동이 일어났다. 이전 시기 일본에서는 신좌익당파가 학생운동의 주류였지만,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학생운동의 주역은 각 대학에서 결성된 무당파 급진주의를 표방한 ‘전공투’라는 대중조직이었다. 전공투에 참여한 학생들은 신좌익당파와는 거리를 두면서 대학이나 사회의 기성 가치관에 격렬하게 도전했다.

일본 현대사 최후의 대규모 학생운동이었던 1968년 전공투 운동은 사상에 의거한 종래의 좌익 운동과는 이질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공투에 대한 현대 일본 사회의 기억과 평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특히 전공투에 대한 현재의 기억과 평가 중에는 1968년 운동에 잠재해 있던 ‘국가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비판’이 있다.

한편,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공투 운동의 참여자 대부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1968년 전공투 운동이 ‘자신들의 언어’를 갖지 못한 것과 연관된다. 과거 사회적 저항에 참여했던 주체의 침묵은 ‘성숙한 사회적 기억’을 갖지 못한 현재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교 교수 · 경영학 ahyoung@iris.conet.ne.jp

1. 문제 제기

1968년은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학생 청년에 의한 급진적 반권력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해로 기억된다. 당시 아시아에서 선진 자본주의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일본에서 1968년을 정점으로 전후 수년간 전국의 대학을 무대로 격렬한 학생운동이 전개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연쇄적인 사회운동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에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재편과 세계적 냉전 체제의 변화, 수렁에 빠진 베트남전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요인이 어떻든지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이 지적한 것처럼 1968년이 “근대 세계체계의 역사 형성에 있어 중요하고 분수령을 이루는 사상”(Wallerstein, 1991: 89)이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960년대 일본의 좌익세력은 오늘과 비교하면 훨씬 강한 조직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일본공산당, 일본사회당이라는 기성 좌익정당을 합치면 국회 내 약 3분의 1의 의석을 차지해 보수정권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었다. 공무원 노조와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한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이하 총평)는 동맹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적인 운동으로 정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1968년 운동의 주역은 이러한 기성 좌익이 아니라, 1950년대 후반에 등장한 신좌익당파 및 어떠한 당파와도 거리를 둔 무당파 급진운동, 특히 후자를 체현한 각 대학 전학공투회의(이하 전공투) 운동이었다.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전 일본 대학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곳에서 학생투쟁이 일어났고, 그것은 베트남 반전운동 및 일·미안전보장조약 반대 운동과 제휴해서 일본 사회를 크게 흔들어놓았다.

이 글에서는 1968년 전공투 운동을 되돌아본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본 사회의 주요 대중매체에서 1968년 학생들의 저항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전공투 운동에 대한 일본의 사회적 기억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1960년대 일본 좌파와 1968년 전공투

1) 1960년 반안보투쟁과 신좌익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황폐했던 일본 경제는 1950년대에 들어서자 고도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56년 경제기획청의 『경제백서』가 “더 이상 전후(戰後)가 아니다”라고 평가한 것과 같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은 가속화된다. 1960년대 일본의 GNP 평균 성장률은 10.0%이고 1956년부터 이후 15년 동안 GNP 총액은 4배가 되었다. 도쿄 올림픽이 있었던 1964년 일본은 OECD 가맹국이 되었으며 1968년에는 GNP가 1,400억 달러를 넘어서 미국, 소련 다음인 세계 제3위 국가로 부상했다(宮崎勇, 1996: 10~12).

한국에서 4·19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회변동이 전개된 지 2개월이 안 되는 1960년 6월, 개정된 일·미안보조약 비준에 반대하는 학생 데모대가 국회의사당에 돌입했고 학생 데모대와 경찰이 격돌하는 와중에서 도쿄대 학생 간바 미치코(樺美智子)가 사망했다. 10만 명의 시민이 국회를 포위할 정도로 국민적인 참여를 보였던 반안보투쟁은 결국 안보조약 저지에 실패한 뒤 수상이었던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할아버지)의 사직과 함께 퇴조했다(西部邁, 2007: 12~21).

한편 안보투쟁을 통한 신좌익 운동의 등장은 일본 좌익 운동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 일본 공산당은 1920년대의 창당 이래 일본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운동을 권위적으로 독점해왔지만 패전 후 그 운동 노선은 좌우로 흔들렸다. 일관성이 부족한 당노선에 덧붙여 스탈린 비판, 헝가리 시민운동 등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골격을 뒤흔드는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 청년층을 중심으로 당 노선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쏟아졌다. 특히 학생층은 1948년, 일본 공산당의 영향 아래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회(전학련)를 결성해 ‘혁명 본대(노동계급)의 선구’라고 하는 입장에서 무장투쟁을 포함한 급진적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그런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일본 공산당 집행부는 비판자를 ‘반혁명 트로츠키주의자’로 단죄하여 당에서 제명했지만, 제명된 학생 청년 가운데서 반스탈린주의를 외치는 새로운 조직이 계속해서 탄생했다. 하나는 1957년에 결성된 혁명적공산

주의자동맹(혁공동)이고, 또 하나는 1958년에 결성된 대중 조직인 공산주의자동맹 [일반적으로 '분트(Bund)'라고 불렀다]였다.

분트는 짧은 사이에 전학련의 실권을 쥐고 국회 돌입에서 상징되는 1960년 안보투쟁의 급진적 역할을 맡으며 청년 학생을 매료시켰지만 안보 개정 저지에 실패하자 집행부가 붕괴되어버렸다. 그러나 분트는 '평화헌법'을 내걸고, 자위대를 부활시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권력의 기반으로 추대하는 복고적인 전후 정치 시스템의 허망뿐 아니라 조직의 권력과 권위를 고집하면서 태연히 민중을 배신하는 기성 좌익 운동의 허망, '평화와 민주주의'를 계몽하면서 스스로는 혁명과 무연인 상아탑의 특권에 안주하는 좌익 지식인의 허망을 일거에 폭로했다. 이것은 바로 “의제(擬制)된 전위(前衛)의 증언”(吉本隆明, 1964: 12)이었고 급진적인 시점에서 짚은 “전후 민주주의의 ‘신화’의 부정(天野惠一, 1989: 40)”이었다.

분트 붕괴 후의 신좌익 운동을 짚어준 것은 혁공동이었다. 1960년대 전반에 혁공동은 크게 '중핵파'와 '혁마르크파(혁명적 마르크스파)'로 분열되었다. 양 파 모두 1960년대 후반의 학생 반란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는 격렬한 당파 간 투쟁(내부 폭력(Gewalt))을 전개하여 시민의 '좌익 배반'과 신좌익 당파 스스로의 쇠퇴를 초래했다.

2) 1968년 전공투운동

1960년 반안보투쟁 이후 쇠퇴하고 있던 학생운동은 1960년 후반에 다시 한 번 부활했다. 그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1960년대를 통해 한 연령대의 대학진학률(2년제 대학 포함)이 두 배로 늘어나 20%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대학교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트를 의미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대학교육의 대중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 진척되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주어지는 교육 내용은, 고도산업사회에 순응해 '과로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로봇과 같은 '회사 전사'를 육성하는 무기적 교육, 또는 정밀한 관리 시스템에 맞는 엘리트와 중간 관리층을 선별하는 차별 교육이었다. 급증하는 대학생의 대부분을 떠맡은 사립대학은 기업화되고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학생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량생산

방식을 도입했다. 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맘모스 대학’이나 1,000명을 수용하는 대교실에서의 무미건조한 강의가 그 전형으로, 이는 흔히 매스프로(매스프로덕션(mass production)) 교육이라고 불렸다. 매스프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고도로 관리된 무기질한 사회(회사)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캠퍼스 밖의 세계에서는 베트남전쟁이 수렁에 빠지고, 일·미안보조약에 따라 눈앞의 미군 기지에서 베트남 인민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기와 전투기가 베트남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1967년 몇 개 사립대학에서 베트남 반전운동과 결부된 학비 인상 반대 투쟁이 일어났고, 10월에는 안보조약의 유지 강화를 획책하는 수상의 방미 반대 가두투쟁으로 학생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투쟁의 주도권은 여전히 신좌익 당파가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인기 작가인 오다 마코토(小田實, 2007년 7월 타계), 철학자 쓰루미 슌스케(鶴見俊輔) 등이 조직한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 자유 의지로 참가한 ‘보통 시민’을 중심으로 데모나 집회뿐 아니라 가두에서의 대중토론회, 해외 미디어에 의한 의견 광고 등 다양하고 유연한 운동 방식을 실천해서 폭넓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1968년이 되자 정치운동의 열기는 당파 주도의 정치투쟁을 멀리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보통 학생’까지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일본공산당이든 신좌익이든 당파가 실권을 쥐는 대의제 학생자치회가 아니라 싸우고 싶은 학생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개방적인 조직인 전공투가 대다수의 대학에서 결성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전공투 회원에 대한 자격을 정한 규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멤버라고 생각하면 전공투 구성원이 될 수 있었다. 클래스나 서클의 대표자회의가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참가자 전원에 의한 직접 토의가 원칙이었다. 학생들은 민주주의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개인의 의견을 속박하는 전후 형식 민주주의나 ‘바른 전위’가 ‘무지한 대중을 지도’하는 레닌적 규율을 요구하는 신좌익당파에 질리고 있었던 것이다. 신좌익당파도 전공투에 참여해 함께 싸우는 관계였지만 전공투의 주도권은 마지막까지 무당파의 ‘보통 학생’들에게 있었다.

이 시기 전공투 운동은 니혼대(日本大)와 도쿄대(東京大) 전공투가 주도했다. 사립인 니혼 대학은 대학원이나 부속 중·고교까지 합치면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전형적인 ‘매스프로’형 매머드 대학으로, 대학 교육의 대중화를 상징했다. 보수 정치인, 재벌과 손을 잡은 대학 경영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한 비용

삭감을 실행했고, 정원의 몇 배가 되는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1968년 5월, 니혼대 경영자의 20억 엔 부정 경리 문제가 발각되자 자연 발생적으로 집합한 학생들이 항의 운동에 나섰다. 대학이 동원한 우익 학생들의 폭력에 중상자를 내면서도 저항의 대열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 시설에 돌입하여 바리케이드로 봉쇄하고 전공투 결성과 전교 파업을 선언했다. 니혼대 전공투는 사회의식 높은 학생이 아닌 대중적인 일반 학생에 의한 ‘자기변혁과 사회변혁’이론을 주장했다.

도쿄대 전공투는 1968년 7월에 결성됐다. 그 계기는 봉건적인 연수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의학부의 항의 행동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원죄(冤罪)적인 처분이었다. 도쿄대라는 권위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국립 도쿄 대학은 일본 아카데미즘의 정점인 동시에 국가 관료나 재계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도쿄대 학생들은 사회를 민주주의로 유도해야 할 대학이 봉건적인 제도나 기만적인 권위의식에 눌러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그러한 대학교육이 유지해온 기만적인 일본의 정치·경제 시스템과 관료나 엘리트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의식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쿄대 전공투 학생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아들여온 스스로를 비판하는 자기 부정의 논리를 제기하고, 그것을 기초로 비뚤어진 사회 시스템을 조성하는 기관인 대학의 해체를 내세우게 되었다. ‘자기 부정’과 ‘대학 해체’는 전공투 운동의 핵심어가 됐다.

1968년을 전후하여 학생운동은 가두에서도 격렬하게 진행됐다. 돌, 화염병, 각목으로 무장한 학생들은 미군 원자력 항공모함의 기항 저지, 수상의 방미 저지, 미군 야전병원 설치 저지 등 실력 투쟁을 전개했다. 1968년 10월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연료탱크 화물열차를 저지하려는 학생·시민과 기동대가 도쿄 최대의 변화기인 신주쿠(新宿) 일대에서 시가전을 벌였다. 같은 날 다른 학생집단은 방위청 돌입을 시도해서 여론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시가전에서는 통제된 신좌익당과 가 활약했지만 전공투 소속 무당파 학생도 대거 참가하고 있었다.

전공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투쟁이 1968년부터 1969년에 걸쳐 절정을 이루자 정부는 대학에 대한 개입과 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대학 정상화’를 진행했다. 1969년 1월, 1만 명의 경찰기동대가 도쿄대 야스다 강당에서 농성하는 학생들을 무력 진압한 것을 계기로 학생운동은 급속히

쇠퇴했고, 1970년에는 거의 종결됐다.

학생운동의 고양을 ‘혁명 전야’로 오해한 일부 신좌익당파는 1970년대 초반, 총기를 사용한, 문자 그대로의 폭력혁명(전쟁)을 구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시민사회의 현실과 너무 떨어진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서 계획 자체도 엉터리였다. 계획에 참가한 멤버는 전원 체포되었고, 그 가운데서 연합적군(聯合赤軍) 그룹이 ‘총팔’이라는 명목의 린치로 많은 멤버를 살해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무모한 극좌주의에 더해 ‘혁명동’, ‘혁명마르파’와 ‘중핵파’등 신좌익당파 사이에서의 처참한 대립 투쟁(내부 폭력(Gewalt))의 격화가 좌익 운동에 대한 시민적인 공감을 소멸시켜버렸다.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대학생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반체제운동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고, 21세기 현재에 이르러 학생운동이라는 말은 이미 소멸한 과거의 역사 용어에 지나지 않고 있다.

3. 1968년 학생들의 저항에 대한 사회적 기억: 과거와 현재

1) 학생들의 폭력 활동으로 자멸한 전공투

일본의 1968년 학생운동은 1960년의 반안보투쟁에 비해 사회적인 파급이 적었다. 노동운동의 주류파가 학생들의 반란에 합류하지 않았고 기성 좌익인 공산당과 사회당은 학생들의 ‘폭력’을 비난했으며 전공투 투쟁 운동을 억압하려 들었다. 경찰과 언론은 하나가 되어 ‘폭력 학생’, ‘과격파 학생’ 단속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 언론으로서 학생운동에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1967년부터 1968년에 걸친 학생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세상에 쇼크를 가져다주어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혁명적인 호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학생으로서 너무나도 사회를 알잡이보고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아니겠는가(《朝日新聞》, 1967.10.9. 社説 “學生運動の異常な事能”).

1년에 걸친 도쿄대 분쟁을 돌이켜보면, 과격파(학생)의 폭력이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그 운동 내부에서 개혁으로의 지향이 없어지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바로 폭력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퇴폐와 부패가 있다(《朝日新聞》, 1968.1.11. 社説 “暴力の中から改革は生まれない”).

아사히신문의 논조에는 정부의 대학 정책 비판이나 대학 당국의 ‘냉정한 대응’을 요구한 부분은 있었지만, 학생운동의 시대적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자세는 읽을 수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전공투 운동에서 사용한 투쟁용 무기가 헬멧, 각목, 돌, 화염병 등으로 1970년대에 일부 신좌익당파가 사용했던 총이나 폭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파’ 아사히신문이 전공투 운동을 일찍부터 ‘과격파’로 단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운동=과격파’라는 인식은 1970년대를 걸쳐 일본 사회에 정착했고, 과격파 학생운동은 현재 조직폭력단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68년 학생운동을 총체적으로 부정하는 정치적 언설은 당시 보수계 언론인을 중심으로 표명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전공투 운동이 역사적 과거가 된 현재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재현되는 기억의 내용이기도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 경찰관료이며 1968년 당시 도쿄대 투쟁 진압 작전에서 지휘관을 맡았던 사사 아쓰유키(佐々淳行)의 회고를 들 수 있다.

도쿄대 야스다 강당 사건은 목적도 수단도 틀린 것이었다는 것이 현재에 와서는 이미 증명되었다. 그것은 ‘직접행동’에 의한 세계 동시·급진·폭력혁명 노선, ‘트로츠키주의’의 좌절의 시작이었다. …… 전공투는 그 정치적 목표 달성의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개념을 원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직접 행동에 ‘인민의 저항권’이라는 논리를 붙여 폭력 활동을 전개했으며, 결국은 자멸했다(佐々淳行, 1996: 319).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전공투 운동은 마르크스나 트로츠키의 사상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특정의 사상에 의거한 행동에는 부정적이었다. 지난 세기 말 세계사적 변동이었던 냉전의 종결, 특히 소련의 붕괴는 일반적인 일본인에게

‘마르크스주의=착오’, 더 나아가서는 ‘좌익 사상=악’이라는 단순한 사고를 남겼다. 사사의 언설은 그것의 전형이다. 사사는 1972년 연합적군을 칭하는 신좌익당과의 일부가, 무장한 채 인질을 붙잡고 산속의 작은 집에서 농성하(아사마 산장 사건)의 진압 과정에서도 현장 지휘를 맡았고 이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과격파’ 단속에서 공적을 세운 사사는 행정부에 ‘위기 관리’ 개념을 도입해 반체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체제를 확립시킨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학비 문제와 같이 후배를 위해 싸운 학생들의 심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쿄대나 아사마 산장에서 있었던 학생들과 기동대의 공방을 직장 텔레비전으로 보았는데,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방식은 오히려 제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되고 전공투 운동은 점차 쇠퇴해갔습니다. - 보육사, 여성, 59세.

전공투 운동이 고양되었지만 그들은 행동뿐이었고 이론은 안 되었다. 나는 대학에 진학해서도 전공투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학의 학장이나 교수와 대중 교섭을 진행해 ‘학문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교수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비웃었다. 그들은 그러한 질문이 자신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많은 학생들이 투쟁에 뛰어들었지만 어차피 일시적인 급진주의 전공투가 침잠하게 된 뒤 학원은 사막처럼 황폐해졌다. 나는 전공투에 원한을 느끼고 있다. - 무직, 남성, 63세.

《아사히신문》의 투고 특집에는 이 외에도 대학 내에 기동대를 투입한 대학 당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회고담 등이 게재되어 있지만, 학생운동을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투고는 없다. 물론 게재된 투고는 온건한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하겠지만 좌익 운동을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 현대 일본의 풍조에 따른 내용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2) 주관주의적 집단행동으로서의 전공투

1968년 저항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단카이(團塊) 세대 혹은 전공투 세대로 불린다. 그들은 같은 세대 내의 단결력을 지만하지만 ‘자기 부정’, ‘대학 해체’ 등과 같은 이념이 상징하는 것처럼 관념적인 동시에 행동을 중시했기 때문에 일본의 전후 세대에게서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전후 세대는 1968년 전공투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의 언설부터 보기로 하자. 전공투의 선행 세대에 속하는 가토 슈이치(加藤周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68년’의 학생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특권’의 포기뿐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위의 ‘특권’을 비판했다. 그 ‘특권’을 만드는 구조가 바로 ‘군산학 복합체’였고 그것을 해체하려고 했다. 이처럼 ‘대학 해체’를 부르짖은 일본의 학생운동이 다른 나라의 학생운동보다 더 확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지 약점은 ‘적’이 너무 커서 그만큼 비판이 추상적이었고 결과가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加藤周一, 2002: 71).

가토는 ‘자기 부정’, ‘대학 해체’의 주장이 단순한 관념의 게임이 아니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구세대 좌익 운동과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논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약점은 주관주의가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 학생들은 무장한 기동대와 싸우는 것이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했다고 하는 이유는 전후의 학생운동이 ‘반공’ 좌익주의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이전의 좌익은 다소라도 마르크스주의의 세례를 받았습니니다. …… 마르크스주의 문헌은 객관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내면적인 흥분이나 심정적인 연대 같은 것을 그다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주관주의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변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加藤周一, 2002: 72~73).

가토는 전공투의 주관주의를 ‘사는 보람을 느끼는 주의(生きがい主義)’라는 표현으로 압축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 대한 전술이나 전략을 경시하고, 경찰력과 싸우는 그때그때의 재미와 흥분에서 사는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해버렸다고 본다.

이 ‘사는 보람을 느끼는 주의’는 일본의 학생운동의 특징입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회에서 갖는 상대적인 평가와 역할을 알고 있었기에 전략을 세우고 노동자와 연대하려 했으며, 또 실제로 연대했습니다. 때문에 5월 혁명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加藤周一, 2002: 233).

‘사는 보람을 느끼는 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공투 세대의 증언이 상당히 많다.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지요, 모든 일은. ‘언어’는 뒤에 따라 옵니다. 처음엔 몸이 움직이지요 나중에 저절로 여러 가지 의미를 부가할 뿐이었지,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과의 투쟁도 좋고,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그것은 확실히 우리들이 개척한 지평이라고 생각합니다”(プロジェクト猿, 1994: 16).

그러나 1968년 운동을 단순한 항략주의, 찰니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전공투도 마르크스주의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있었고, 실제 당시 투쟁에 사용되었던 언술은 마르크스주의의 언술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반체제 운동과 비교하여 결정적인 차이는 마르크스주의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절대적인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해체되어 있었다. 1968년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연관에 대해서는 전공투 세대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경제사상 연구가인 오구라 히데마루(小倉秀丸)는 이렇게 말한다.

구미의 경우, 이전의 서구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렀던 것이 많이 변화했다. 그때까지 계급투쟁 사관밖에 없었는데 페미니즘, 환경, 소수자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동요가 시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로의 큰 전환과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신좌익적인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이 생겨난 후 1960년대 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운동을 마르크스주의 내부로 수용하지 못하고 모두 그냥 지나쳐 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것이 1970년대 이후 일본의 마르크스주의를 상당히 빈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닐까(コメンター 戦後50年編集委員会, 1996: 21~22).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주의의 본래적 유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토의 논의와도 공통점이 있다. 다른 한편 전공투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반(反)천황제 시민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아마노 게이치(天野惠一)는 1960년대에 ‘계급투쟁 사관’ 자체가 이미 현실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닌의 새로운 후계자는 스탈린이 아니라 트로츠키였다는 수준의 논의를 벗어나서 도시노동자의 운동과 불세비키당 중심사관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는 인식이 좌익 활동가 세계에서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었다. …… 지배, 억압, 착취, 수탈, 계급 간의 투쟁도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혁명은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 따위의 논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했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나 ‘당=인민의 입장’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개념이 자기 동화를 강제하고 현실을 보이지 않게 해버리는 ‘보편적 논리’의 폭력. 거기에 대항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에 구체적으로 천착하는 자세에 기초한 ‘개인(個) 사상’의 분출과 좌익 운동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일원적인 지배가 붕괴로 향하고 있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현상이었다. 나는 ‘삶에 대한 태도’로서의 개인적인 고집이 정치운동의 논리로서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대중화한 것은 그 시대의 좋은 징조였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다(天野惠一, 1994: 27).

아마노에 따르면 가토가 말하는 ‘반공’ 좌익주의라는 평가가 꼭 적절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비해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모든 특정 사상을 ‘객관’의 기준에 놓고 자기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시키는 태도를 중단하고, 사상을

무기로 쓰면서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논리가 강조되고 있다. 전공투의 혁명성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본다.

3) 포스트모던에 포섭된 ‘1968년’ 전공투의 메아리

무당파 학생의 급진적인 반란은 일본의 시민사회를 흔들었지만 그들이 꿈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관계를 향해 일본 국민이 움직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이 자각한 대로 그것은 ‘고립무원’의 행동이었다. 대학 ‘정상화’ 이후 바리케이드에서 추방된 학생 대부분은 졸업 증서를 손에 쥐고 기업에 취직했으며, 그들이 그렇게 신랄하게 공격한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추에서 ‘산업 전사’로 일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기되었던 패배였다. 그러나 전공투적인 ‘의지’는 그 이후에도 일본 사회에 산적한 개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환됨으로써 완전히 종결,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1970년대 이후 일본 시민사회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전공투 운동은) 대학이 ‘정상화’되어도 자신은 ‘정상화’될 수 없는 학생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제도’에 침식되어 취약해진 자신을 응시하고 그 취약함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적지 않은 인간들을 만들어낸 것이다(天野惠一, 1994: 50).

1970년대 이후 거대한 정치적 과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주목하는 지역 거점(풀뿌리)형 시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자신의 책임과 독자적인 관점, 운동 방식을 고집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세, 이론에만 끌리지 않고 눈앞의 현실을 중시하는 현장주의, 참가자 전원에 의한 토론을 중시하는 참가형 민주주의 등은 전공투 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반차별 운동이나 당시까지 사회적인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재일 한국·조선인, 피차별 부락민, 장애인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 시스템이 비판과 변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는 베트남 반전운동을 통해 형성된,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일본에 대한 자각도 큰 역할을 했다. 이 연장선

속에서 1970년의 ‘일·한 연대’ 시민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가치의 ‘객관주의’를 타도한 1968년 운동 이후의 소수자 운동에는 스가히데미(すが秀美)가 주장한 것과 같은 다음의 측면도 있었다.

다양한 소수자가 역사의 주체로 등장하고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권력자가 기술해온 ‘정사(正史)’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위사(僞史)’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스탈린 비판에 의해 사적유물론이라고 하는 ‘정사’가 실추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역사라는 것은 본래 하부 경제구조가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자의 입과 헤게모니에 의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어학의 전환’에 의해 초래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구조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가 등장하지만 그것은 이미 포스트모던 현상이었다(すが秀美, 2006: 194).

‘정당’의 기준이 붕괴함으로써 ‘위사’도, ‘이단’도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하철 내에 독가스를 뿌린 ‘움진리교’조차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고 스기는 지적한다. 동일한 입장에서 아마노는 전공투적인 ‘전후 비판’이 내포하고 있던 근대 과학·논리에로의 비판이 과학·논리 자체의 부정으로 변질되어 비합리적인 국가주의에 토대를 둔 ‘전후 비판’이 크게 활개 치며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전 시기에 ‘전후 비판’은 터부였다. 1970년대에 ‘전후 비판’은 하나의 지적 유행이 되었다. 그리고 이 유행하는 전후 비판 속에서 적지 않은 것이 권력의 이데올로기와 밀통하기 시작한다(天野惠一, 1989: 52).

이러한 아마노의 지적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나 아베 전(前) 수상의 ‘아름다운 나라’와 같은 국가주의적 언설의 부활이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곳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전공투 운동 속에 내재한 ‘민족적인 것’에 대한 최근의 언설을 살펴보기로 하자.

4) 전공투 경험과 민족주의, 천황제의 공존

철학자인 고사카 슈헤이(小坂修平)는 전공투 공간을 파리코뎀에 견주어 ‘축제의 공간’이었다고 해석한다. 그는 전공투 운동이 정치적인 변혁에는 실패했어도, 그 과정에서 형성된 기존 사회질서와 단절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기존의 규범적인 사고에서 해방되어 ‘공상’의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소동’이었다고 평가한다. 고사카는 도쿄대 전공투 시절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를 초대하여 전공투 학생들과 토론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시마는 천황제라고 하는 핵이 결여된 ‘공허’한 전후 일본사회를 비판하면서 1960년대에는 천황주의에 열렬히 탐닉한 우익 학생들을 모아 민병 조직까지 만들기도 했던 인물이다. 도쿄대에 나타난 다음해인 1970년에 민병대원 수 명과 함께 동경도 내의 방위청을 습격하고 간부를 인질로 삼은 뒤 자위대원들에게 헌법 개정을 위한 쿠데타 결기를 호소했다. 이것이 실패한 후 그는 일본도로 할복자살했다. 그러나 전공투와 미시마의 좌우 반대편에서의 전후 민주 사회 비판은 예상과 달리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고사카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회고한다.

전공투와 미시마 유키오의 ‘공감’ 관계를 만든 사상적인 이유는 폭력의 긍정, 직접 행동주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은 전후 민주적인 지식인의 위선의 부정과 자신에 대한 성실성이 상대에게서 느꼈다는 점이다. 전후 사회가 만든 기만과 관계를 끊는다는 점에서 기묘한 일치가 성립된 것이다(小坂修平, 2006: 111).

그 장소에서 미시마는 “야스다 강당에서 농성한 학생들이 ‘천황’이라는 한마디만 외쳐주었더라면 자신도 기쁘게 같이 농성했을 것이고 기쁘게 (그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三島由紀夫·芥正彦, 2000: 12). 당시 학생들과의 격론이 벌어 지기도 했으나, 천황주의 극우의 미시마와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극좌학생들의 ‘공감’, 또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적어도 부정하지 않는) 기억은 현대 일본 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960년 안보투쟁 때 외쳐진 ‘반미’의 목소리에 일본의 패전과 연관된 반미 민족주의가 잠재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스가히데미가 ‘우익과 좌익의 미묘한 동맹(Collaboration)’(すが秀実, 2006: 190)이라고 표현하는 사상적인 배경이 1968년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야스다 강당에 최후까지 남아 강당방위대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있었던 시마 다이조(島泰三)는 당시 쇼와 천황이 ‘기동대와 학생들 사이의 난투를 마치 자신의 아들 형제들의 싸움을 보는 것과 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몇 십 년 후에 듣고 다음과 같은 논거로 당시 대학이나 경찰의 대응을 비판한다.

동포다. 학생과 기동대라고 해도 그것은 동포다. 과연 이 열도에 사는 자 모두가 완전히 같은 민족이 아니다. 그러나 이 열도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동포다. 거기에는 계급도 있을 것이고 다른 민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열도에서는 동포다. 그것을 분단하는 사상은 뿌리 내리지 않는다(島泰三, 2005: 316).

이것은 1930년대, 일본 제국군대의 급진과 젊은 장교들이 꿈꾸던 천황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제국주의 사상의 재현인 것이다. 계속해서 시마는 도쿄대 전공투 일 년 전, 원자력 항모 입항 반대 운동으로 나가사키 현(長崎縣) 사세보(佐世保)에 있는 미국군 기지에 돌입했을 때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거의 모든 일본인은 애국심의 덩어리이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민족감정과 일본에 대한 충절은 이것 때문에 자연스러운 감정이 된다. 이러한 심정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적’ 미군 기지에 돌입한 ‘폭력 학생’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島泰三, 2005: 11).

시마의 회고에 ‘국제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놀랄 만하다. 당시 미군기지 돌입을 주도한 학생들은 현지 전철 안에서 차장에게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격려를 받았고, 승객들에게는 자리를 양보 받았다고 한다. 시마에 의하면 학생과

시민이 ‘아마토 혼(大和魂)’으로 맺어져 있었다. 이것은 일본 사회 전역에서 일본인의 의식에 뿌리 깊이 침투한 천황제, 그 깊은 어둠을 보여준다.

물론 전공투 투쟁 경험자 중에는 이러한 회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마노 게이치는 미시마 유키오가 도쿄대학에서 한 ‘학생들이 천황이라고 한마디만 외쳐주었다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미시마가 이런 것을 가볍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무드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전공투 운동이 내포한 사상적 빈곤함을 반대편에서 비추고 있는 것이다. 미시마는 깔보고 있었다. 천황주의자 미시마에게 천황제는 절실한 사상적인 과제였으나 많은 전공투 활동가에 반(反)천황제는 절실한 사상적 테마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天野惠一, 1989: 56).

아마노는 일상의 구체적인 과제에 주목했던 전공투 운동의 경험이 전공투 이후 현재 일본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어, 더욱 풍부하게 되살아나는 어떤 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반(反)천황제 운동의 체험을 매개로 전공투 경험이 형태를 달리하여 살아난다고 말한다. 전후로부터 급진 좌익 운동을 ‘전향’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체제 내에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온 천황제는 1968년의 저항마저 무화(無化)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마노와 같이 천황제의 미술에서 벗어나 경험으로서의 전공투 운동을 소생시키려는 행동을 통해 변혁의 의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 마무리: 침묵 속의 ‘기억’

과연 일본 사회에서 1968년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을까? 전공투로 상징되는 무당파 급진운동은 ‘자기운동’, ‘자기변혁’을 전제로 한 ‘사회변혁’을 — 구체적으로는 ‘대학 해체’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해체’를 — 목표로 했다. 그러나 사회변혁은 일어나지 않았고 재편된 자본주의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리를 비약적으로 강화했다. ‘해체’당한 것은

대학과 사회 시스템뿐 아니라 운동 그 자체이고, 이런 점에서 전공투 운동은 패배의 투쟁이었다. 하지만 ‘권력탈환=혁명투쟁’이라는 낡은 좌익 운동의 정식을 부정한 그들이 중시한 것은 투쟁의 승패나 전술·전략론보다 투쟁의 과정을 통해 쌓은 새로운 개인과 개인(個對個)의 인간관계와 투쟁의 순간에 자각한 실존에의 의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시대로 전해 내려갈 기억 속에 호명되어야 했던 것은—운동 과정의 여러 가지 착오를 포함하여—종래의 사회운동에는 없었던 ‘개인’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운동 형식, 개개인의 진정한 수평적 결합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의 구축, 바로 이러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전공투 운동의 의지는 1970년대 이후 투쟁의 장소를 바꾸어 다양한 개별 과제를 통해 일본 시민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개별 과제 속으로 확산된 운동이 시민사회 전체의 변혁 운동으로 연결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변혁의 주축이었던 시민운동은 변혁을 시민사회의 흐름으로 정착시키기 전에 끝없는 침체에 들어가버렸다. 일본 시민사회의 쇠퇴마저 이야기되는 오늘날 운동으로서의 전공투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나 국가와 손을 잡았던 대중매체가 양산한 ‘폭력운동’, ‘과격파’, ‘청춘기에 있을 수 있는 일시적인 헛소동’ 등 전공투 운동에 부정적인 관제 기억이 과거 40년간 주류를 형성했다. ‘과격파’라는 말은 처음 총이나 폭탄에 의한 무장투쟁을 주장한 일부 신좌익당파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시민의 공포를 부채질해서 활동가에 대한 지역감시망을 정밀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표현은 현재, 학생운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표상하는 용어로 되고 말았다. 전공투로부터 20년, 30년 뒤 일본의 대중매체는 서적이나 영상에 의한 ‘전공투 붐’을 기획했으나, 표피적인 체험에 대한 언급이나 청춘기에 관한 감상적인 추억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 1968년부터 40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전공투 운동의 중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체험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운동의 안팎에서 1968년을 체험한 사람들의 집합으로서의 기억은 봉인되어 있다. 이것은 정부와 보수 언론에 의한 일방적인 ‘기억의 정치’를 허용함으로써 후속 세대에게서 ‘무책임’이라는 불신감을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왜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사망자와 많은 장애자를 낸 가혹한 무력 탄압, 비합법

활동 일반, 처참한 내부 폭력에 대한 체험, 나아가 끔찍한 무장투쟁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이 침묵의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 혹은 운동 해체 후 ‘산업 전사’로 ‘전향한 경력’이 불리일으키는 일본 사회 특유의 ‘수치’ 의식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원인은 전공투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안보투쟁의 시대에는 신좌익을 포함하여 여전히 마르크스주의를 기초로 한 좌익 정치적 공동 언어의 세계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전후 구좌익이 철저한 비판에 노출된 뒤인 1968년에는 ‘진정한 사회주의’를 향한 기대와 동경은 있었지만, 정식화된 정치 용어 그 자체가 이미 현실성을 잃어버리고 차츰 사라지는 과정에 있었다. 자기의 존재마저 확신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시대의 변화에 밀리듯이 저항의 대열에 나섰을 때, ‘자기 변혁’, ‘자기 부정’ 등의 단편적인 용어 이외에 그들의 풍부한 이미지와 상상력을 표현할 언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도 모른다. 또한 그들의 ‘자기 변혁’, ‘자기 부정’ 등의 언어는 한편으로 사회변혁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사고를 개인의 내면으로 무한히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와는 다르지만 ‘연대를 바라지만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정치적인 언어 대신 신체론이나 신체적 언어가 학생들에게 유행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1970년 이후 시민사회의 전개 과정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의지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언어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 자신에 의한 신체적 투쟁이 보편적 언어의 전제조건까지 해체해버렸기 때문이다.

언어는 가치를 내포한다. 정식화된 정치 언어의 붕괴는 그것에 내포된 억압받는 모든 가치의 분출과 끝없는 다양화를 초래했다. 동경대 조교로 일하면서 전공투 운동에 참가한 과학자 사이슈 사토루(最首悟, 2004)는 그것을 ‘가치의 문란(紊亂)’이라고 부른다.

‘가치의 문란’이 낡은 시스템을 파괴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든 것은 확실하다. 동시에 선악의 판단 기준을 상대화시킴으로써 모든 사상과 이념을 실추시켰다. 학생운동이 무수한 가치관을 가두고 있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후 일본 사회는 가치관의 바다를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은 상황이다. 표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람들이 국가주의에 향수를 느끼기 시작한 현재까지도 1968년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언어로 성숙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2007년 9월 23일 접수, 2007년 11월 15일 채택)

□ 주요 용어

1968년 일본 학생운동, 전공투, 사회적 기억, 신좌파

□ 참고문헌

- 天野恵一. 1989. 『全共闘経験の現在』. インパクト出版会.
_____. 1994. 『「無黨派」という堂派性』. インパクト出版会.
加藤周一. 2002. 『テロリズムと日常性 —「9·11」と「世直し」68年』. 青木書店.
小阪修平. 2006. 『思想としての全共闘運動』. 筑摩書房
コメンタール戦後50年編集委員会編. 1996. 『もう一つの戦後へ』. 社会評論社.
最首悟. 2004. 『全共闘と價値の紊亂』. <http://www.geocities.jp/saishjuku/archive0133.htm>.
佐々淳行. 1996. 『東大落城』. 文芸春秋.
島泰三. 2005. 『安田講堂 1968-69』.
すが秀実. 2006. 『1968年』. 筑摩書房.
プロジェクト猪. 1994. 『全共闘白書』. 新朝社.
西部邁. 2007. 『六十年安保-センチメンタルジャーニー』. 洋泉社.
三島由紀夫·芥正彦ほか. 2000. 『三島由紀夫 vs 東大全共闘』. 藤原書店.
宮崎勇. 1996. 『日本經濟図説』. 岩波書店.
ウォーラステイン(I. Wallerstein). 1992. 『ポスト・アメリカ: 世界システムにおける地政學と地政文化』. 藤原書店.
吉本隆明. 1964. 『擬制の終焉』. 現代思潮社.
《朝日新聞》.

Japanese Social Memory and Evaluation to the Student Movement in 1968

Chung, Ah-young

In 1968, a large-scale student movement happened in Japan like France, Germany, U.S.A. A new left movement political party was the mainstream of the student movement in Japan, but the leading role of the student movement was the Zenkyoto(All-Campus Joint Struggle Committee) which advocated non-partisan radicalism formed at each university in those days from 1968 to 1970. The students who gathered in the Zenkyoto challenged a university and social established sense of values intensely while putting distance with the new left movement political party. The Zenkyoto movement which is considered as the last large-scale student movement in Japanese contemporary history, had the heterogeneous side with the conventional leftist movement that depended on an existing ideology. Therefore the Zenkyoto movement receives various evaluations from not only the conservatives but also the progress group in modern Japan. In addition, it is clear that the thought of the nationalism hid behind in the Zenkyoto movement. However, most experients of the Zenkyoto movement keep silence till they reach it today, therefore it is not formed as social memory enough.

Keywords: Student movement in 1968, Zenkyoto, social memory, newleft party

A Study on Labour Movement Strategy in the Period of Labour Regime Transformation

Roh, joong-kec

Democratic labour union movement in Korea has made a significant progress in last 20years. With militant unionism strategy it could enhance its organizational capacity and form the KCTU and KDLP. But now it has fallen in a deep structural